
韓國에서 既婚婦人の 就業 :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자* · 공세권** · Karen O. Mason***

이 논문은 한국 기혼부인들의 취업행태(就業行態)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것이다. 최근 부인(15~64세)들의 취업의사(就業意思)는 여성취업(女性就業)을 반대하는 경우가 8퍼센트에 불과하며, 가정사정을 고려한 조건부 찬성이 35퍼센트, 그리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경우가 57퍼센트에 달한다. 이러한 취업의사는 부인들이 도시에서 성장한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이유에 의한 취업경험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은 자의(自意)에 의해서보다 가족에 의한 영향이 크고,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6세 미만 어린 자녀를 둔 경우일수록 역상관관계(逆相關關係)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부인취업에 대한 긍정적 의식은 교육기회의 확대, 혼전취업(婚前就業)의 증가, 가사노동(家事勞動)의 기계화, 그리고 출산력 저하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었지만 실제 취업은 개인적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가정적 가사(家事) 및 자녀 양육 등 전통적 역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 등에서 저항과 갈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인취업(婦人就業)은 부인 자신만의 관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교육이 확대되면서 많은 고급인력이 양성되고, 또 기업은 인력난으로 경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수급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점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I. 연구배경

최근 여성취업(女性就業)은 1960년 이후 10년마다 7퍼센트씩 증가하여 47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취업양상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농업부문 내지 가사 종사율(家事從事率)의 감소와 비농업부문 내지 가외 취업률(家外就業率)의 증가(Kong and Choe, 1989),

* 미국 동서문화 센터 인구연구소, 부소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동서문화 센터 인구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으로 대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부인취업(婦人就業)은 가사(家事)나 자녀(子女)의 출산 및 양육 등 많은 제약요건(制約要件)이 있음에도 왜 이처럼 증가하고, 또 취업에 뒤따르는 문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최근 부인들의 취업행태(就業行態)와 관련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에 기초자료를 제공코저 한다.

일반적으로 기혼부인들의 취업행태에 관한 분석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부인들이 취업을 원하고, 또 실제 취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사(個人意思)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부인의 개인특성과 가정사정, 그리고 사회여건은 물론 성장과정의 취업경험이나 가정 및 사회여건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였다. 즉 부인의 연령, 교육수준, 성장지, 현 거주지, 취업경험, 결혼요건,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이 그것이다. 왜냐 하면 부인취업은 단순히 개인의사만이 아니라 생애경험(生涯經驗), 가정형편 또는 지역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인 취업은 의식과 행동이 직접 맞물려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행동이 일정한 격차(Oppenheimer, 1970)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취업은 개인의사보다는 주변여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정 중심의 생산체제가 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정은 일종의 소비단위로 변했다. 또한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출산력의 저하는 가사(家事)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전담해 왔던 가정주부의 역할 변화를

촉진시켰다. 그뿐만이 아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Tsuya and Choe, 1991) 등은 가정 단위의 소비욕구를 증대시켜 여성은 가정내에 안주하기보다 가외취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적 또는 사회적으로 취업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취업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인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나, 또는 하기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역설적인 면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서구 선진국의 산업화 초기단계나 소위 신흥개발국(NICs)으로 일컬어지는 홍콩이나 대만의 경우도 비슷한 실정이다. 그것은 관련연구들의 지적(Lu, 1980)과 같이 지난 20~30년간 여성취업이 현저히 증가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가사나 자녀의 출산 및 양육 등 제약조건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부인취업이 가정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가정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고, 또 가사와 취업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병행해야 하는 데에서 문제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여성취업은 한국과 같이 가정주부의 이상형을 '현모양처(賢母良妻)'로 삼고 남자는 가정 밖으로, 여자는 가정내로 성별 역할분담(性別役割分擔)을 관습화해 온 문화에서 보다 많은 저항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취업을 않고 있는 부인은 가족의 반대(22%)나 자녀의 출산 및 양육(30%)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과반수에 달하고, 또 취업의 중단도 대개 가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공세권 외, 1992). 이러한 점은 최근 연령별 취업률이 "M"字 型을 나타내어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기에 취업률이 감소되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룰수록 여성취업은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취업률도 증가하면서 여성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사회에서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높아져 연령별 굴곡의 완화를 볼 수 있다(Tsuya and Choe, 1991).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먼저 최근 여성취업과 관련된 취업여건과 취업양상, 그리고 부인 특성별 취업의식을 검토하여 이러한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와, 또 취업의사가 실제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취업에 부정적인 요인을 규명하려는 데 기초를 두었다. 다시 말해서 여성취업이 가정적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왜 증가되고 있으며 또 관련 문제는 무엇인지가 본 연구의 관심인 것이다.

II. 취업여건의 변화

한국사회는 금세기에 이르러 사회·경제·인구 등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1차 산업이 2~3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1960년 현재 전체 취업자 중 약 2/3에 달하던 1차 산업 종사율이 1990년에는 1/5로 감소했고, 같은 시기에 국민 1인당 GNP는 \$100 미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5,000에 접근하고 있다. 또 1960년에 총인구 중 28퍼센트에 불과했던 도시 인구가 최근 74퍼센트로 증가(<표 1> 참조)되어 전통적 농경사회는 도시·산업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처럼 급속한 변화에서 사회적 정형(定型)은 한꺼번에 다른 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은 변하고, 다른 면은 그대로 있는 불균형 내지 부조화 현상이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취업을 논의하는 데서도 예외

일 수 없다.

여성취업은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가사노동 내지는 가사와 병행할 수 있는 농업부문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이룰수록 가외취업의 증가와 함께 전체 산업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혼부인의 가외취업은 개인 특성은 물론 가정형편 내지 사회여건 등 3자간의 관계에서 가능할 수 있다. 즉 ① 부인이 취업할 의사와 취업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점 ② 부인취업이 가정의 협조와 생활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점, 또는 ③ 사회적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취업에 만족할 수 있느냐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3자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부인취업은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취업과 관련된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화가 여성 자신에게

Table 1. Selected Indicator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 1960~1990

일부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 : 1960~1990

Year	Per capita GNP in U.S. dollars	Percentage urban	Percentage of workers in primary industry
1960	87*	28	66
1970	243	41	51
1980	1,592	57	34
1990	4,968**	74	20

Note : * For 1962.

** For 1989.

Sources : Economic Planning Board, *Korean Economic Indicators*, various year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arious years.

미친 영향으로 교육수준의 향상과 출산력의 저하, 그리고 결혼연령의 상승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1975년에 고등학교 이상이 35퍼센트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는 85퍼센트로 증가했고(<표 2> 참조), 초혼연령은 1955년에 21세였던 것이 1990년에 25세로 상승했다. 또 출산력은 1960년에 부인당 6.0에 이르던 합계 출산률이 1986년에는 1.6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화는 여성 자신들의 가치관 변화와 혼전역할(婚前役割)의 다양화를 가져왔고, 출산 부담의 경감은 전통 규범에 따른 현모양처의 미덕만을 준수할 수 없게 한 요건일 수 있다(Tsuya and Choe, 1991).

Table 2. Senior high school enrollment rates : 1975~1990

여성의 고등학교 이상 취학률 : 1975~1990

Year	Enrollment rates	
	Male	Female
1975	51	35
1980	74	62
1985	83	75
1990	90	85

Source : Ministry of Education(1990),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다음은 산업화가 가정에 미친 영향으로 이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 가사노동의 기계화 등 가정을 일종의 소비단위로 변화시킨 점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은 생활 필수품의 구입과 교육비의 증가로 늘어나는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제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취업을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취학이나 취업이 거주지 내에서 가능하지 못할 경우 분거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출산력 저하와 함께 가

정규모를 축소시켜 평균 가구원수(家口員數)는 1960년에 5.6명이 1991년에 3.6명으로, 또 같은 기간에 1세대 가정은 7.5퍼센트가 24.0퍼센트로 증가하면서 3세대 가족은 28.5퍼센트에서 11.3퍼센트로 감소되어 대부분의 가족은 다양한 핵가족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공세권 외, 1992).

Table 3. Age at first marriage for female population and total fertility rate : 1955~1990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및 부인당 합계 출산율 : 1955~1990

Year	Age at first marriage, female*	Total fertility rate
1955	20.5	5.6
1960	21.5	6.0
1965	23.8**	5.0
1970	23.3	4.5
1975	23.7	3.3
1980	24.1	2.7
1985	24.7	1.7
1990	25.1	1.6

Note : * Estimated from the census reports on proportions of single persons by age.

** For 1966.

Sources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arious years; Coale, Ansley J., Lee-Jay Cho and Noreen Goldman(1980), *Estimation of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Mort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1), *Population Projections for 1990~2021*.

물론 산업화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가족의 변화는 산업화의 종속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 즉 기업 중심 생산체제는 가정과 노동의 분리를 가져왔고, 기술집약적 양산체제(技術集約的產體制)는 교육기회의 확대나 취업률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은 물론 가족의 변화를 유도한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성의 전통적 가사역할(家事役割)이 근대적 가외역할(家外役割)로 이어진 점은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이 못되지만 이를 전통의식이나 관습 하에 수용하려는 데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는 저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공세권 외, 1987).

III. 여성취업의 변화

산업화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 중 교육기회의 확대나 출산력의 감소, 그리고 취업률의 증가는 여성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도 중요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여성 취업률은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15세 이상 여성 중 25퍼센트에 불과했고, 이는 대부분 가사와 병행할 수 있는 농업이나 단순노동에 국한되었다. 이는 1960년 이후부터 기업이 모자라는 일손을 여성인력으로 충당하려는 데서 미혼여성의 제조업 분야 참여로 이어져 1975년에 여성 취업률은 38퍼센트로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미혼여성의 교육참여가 늘어나게 되어 기혼여성으로 인력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에는 46퍼센트로 증가하였고, 취업자 중 3/4이 기혼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및 <표 5> 참조).

연령별 여성 취업률은 <표 5>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를수록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5~19세 층은

교육참여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20~24세의 취업률은 계속 증가했지만 고출산기(高出産期)인 25~29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비교적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다가 30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M」자 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선행 연구(Kong and Choe, 1989)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부인 중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취업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수록 연령별 취업굴곡이 완화되고 있음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취업률, 그리고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여성취업에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취업률은 이제까지 양적 증가에 비추어 질적인 면에서는 미성숙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직종면(職種面)에서 농업 관련 직(20%)과 단순노동(26%)이 46퍼센트를 점유하고, 또 종사면(從事面)에서는 임금 취업이

Table 4. Percentage of female population aged 15 and over currently in labor force by type of household : 1960~1990

Year	Type of household		
	Farming	Non-farming	Total
1960*	31	17	25
1970	48	28	37
1980	53	34	40
1990	61	43	46

Note : * For 1960, the base is female population over 13.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arious years.

44퍼센트 수준인 반면 나머지는 자영업(19%)이나 일당직(13%) 또는 무급가사 종사(25%)로 구성(NSO, 1991)되어 있다. 또 임금 취업의 경우도 이는 기업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가 심하여 같은 직종의 남성과 비교할 때 약 45퍼센트 수준(여성개발원, 1986)에 있고, 취업조건 역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여성취업은 전문직에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경우(4.3

%)는 매우 드문 상태이며, 생계가 어렵거나 가정사업을 돕기 위한 경우(47%), 또는 생활비를 보태거나 용돈을 벌기 위한 경우(4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공세권 외, 1987).

연령별·직종별 취업률은 <표 6>과 같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생산직이 20~30퍼센트 수준을 차지하여 다른 직종과 차이가 많다. 즉 24세 미만은 대부분 고학력 미혼층으로 이들은 과반수가 전문·행정 및 사무직에 종사하고

Table 5. Percentages of female population in labor force by age : 1960~1990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 : 1960~1990

Age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5~19	22	33	41	34	27	19	17
20~24	28	37	40	42	46	52	62
25~29	25	31	30	29	30	35	42
30~34	28	34	38	36	41	43	49
35~39	32	43	44	49	55	52	58
40~44	34	48	50	53	60	58	60
45~49	34	46	50	53	64	59	64
50~54	32	41	43	54	58	52	60
55~59	28	32	37	47	50	47	54
60+	12	12	15	18	18	19	25

Sources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s*, various years.

있으며 서비스 직과 농업 관련직은 매우 드문 상태이다. 또 25~29세는 고출생기(高出生期)로 비교적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행정 및 사무직은 20~24세보다는 낮지만 다른 어느 직종보다 높고, 판매 및 서비스 직에서도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30세 이상은 전문·행정 및 사무직의 종사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판매 및 서비스 직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점은 최근 부인들의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즉 젊은 층은 대개가 고학력층으로 구성

되어 전문·사무직의 종사율이 높고 또 이들은 출산기에도 취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현저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취업이 교육수준의 향상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부추겨진 결과라면 이는 그 제약요건(制約要件)으로 사료되는 가사(家事)나 출산 및 양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자료 및 방법

동 분석에서 이용한 자료는 1986년에 한국

인구보건연구원(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미만 기혼부인 3,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생활 주기(家族生活週期)에 관한 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가족형태(家族形態)와 결혼력(結婚歷), 출산력(出產歷) 및 취업력(就業歷)에 관한 조사로서 동 조사에서 이런 변수들은 가족생활 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취업력은 혼전(婚前)과 혼후(婚後)의 출산 시기별로 구분되어 취업의사 및 실태 분석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연령 및 가족 주기별 분석도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 부인의 취업의사에 관한 질문형태는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고 응답으로 ① 여자는 직업을 갖

지 않는 것이 좋다, ② 결혼 전에만 갖는 것이 좋다, ③ 자녀를 낳기 전에만 갖는 것이 좋다, ④ 자녀가 성장한 후에만 갖는 것이 좋다, ⑤ 결혼 및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갖는 것이 좋다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미상(未詳)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러한 내용에서 1차 제표결과(製表結果)를 토대로 본 분석은 ②~④ 항목을 1개 항목으로 묶어 ① 취업을 원치 않는 경우, ② 조건부 취업을 원하는 경우, ③ 언제든지 취업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④ 미상 등 4개 항목으로 나누어 단순교차 분석을 통해서 검토한 후 언제든지 취업을 원한다는 경우에 한하여다변량 분석(多變量分析)* 및 로지트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Table 6. Percentage distribution of occupation of female workers by age : 1990

여성의 직종별 취업 구성률(%)
: 1990

Age	Professional/ Technical	Sales	Service	Farm related	Produc- tion	Age	Professional/ Technical	Sales	Service	Farm related	Produc- tion
15~19	52	10	8	1	29	40~44	6	22	26	18	28
20~24	57	10	8	1	24	45~49	5	20	22	29	23
25~29	37	14	14	6	28	50~54	3	18	18	40	21
30~34	13	22	20	11	33	55~59	3	14	15	50	17
35~39	8	23	22	15	31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1992),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V. 분석결과

본 분석에서 부인취업에 관한 태도는 성장과 정에서의 ① 여성역할에 대한 규범적인 측면

(취업의사), ② 사회경제적 측면(교육수준), ③ 혼전 취업경험 유무, 그리고 ④ 결혼요건(결혼 연령, 결혼 결정, 결혼 후 주거지 및 남편과의 연령차 및 교육수준의 차이)등이 고려되었다.

* 여기서 부인들의 응답내용 중 미상인 경우는 1% 이내로 다변량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 로지트 회귀분석 방법은 Retherford R. D. and M. K. Choe, Statistical Model for Causal Analysi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발간 중) 참조함.

이는 여성의 취업에 관한 의식이 성장과정에서 주변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가정형편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부인 특성별 취업에 관한 태도는 <표 7>에서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 측면을 엿볼 수 있으며, 개인 특성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령층에서 취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점은 성장환경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점(Mason and Lu, 1987) 일 뿐 실제 대부분의 부인은 취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함을 엿볼 수 있다.

부인의 성장지별(成長地別) 취업태도는 도시에서 성장한 경우가 농촌에서 성장한 경우보다 비교적 긍정적이며, 교육기간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긍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현 주거지별로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차이가 없으나 서울에 거주하는 부인은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다소 취업에 부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혼전취업 여부에 따른 취업태도는 취업경험이 없는 부인보다 있는 부인에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또 결혼과 관련 변수는 결혼연령이 만혼일수록 취업에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었고, 자유훈이나 결혼 후 시부모와 별거의 경우도 다소 취업에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만혼이 고학력 및 혼전취업과 관련이 있고, 또 자유훈 및 결혼 후 시부모와 비동거, 그리고 남편과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적은 점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응답결과에서 미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에서 어떤 변수가 부인들의 취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트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여기서 부인의 ① 성장지, ② 교육수준, ③ 혼

전취업, ④ 결혼연령, ⑤ 혼후 시부모와의 동거 등은 10퍼센트 내에서 취업태도와 유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 7>에서도 도시 성장, 교육수준, 혼전취업 등이 부인의 취업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후 시부모와의 동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혼연령과 시부모와의 동거가 이미 부인의 성장지, 교육수준 및 혼전취업 등의 변수에 의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결혼과 관련된 두 변수가 부인취업에 미치는 순영향(純影響[net effect])은 부인의 취업태도에 위조관계(偽造關係)를 제시하고 있을 뿐 유의성(有意性)은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도시 성장, 교육수준 및 혼전취업만이 유의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혼전취업은 가정사정에 의한 경우보다는 개인적 이유에 의한 취업만이 유의성이 있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의 기혼부인들이 결혼조건이나 시부모와의 동거 등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혼부인 중 57퍼센트가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지역에서 성장했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혼전취업을 했던 경우에서 68퍼센트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기혼여성들은 가정주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주목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부인들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부인들의 성장배경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나 교육수준 및 혼전의 취업 경험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부인들이 도시에서 성장한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가정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취업한 경험을 가진 부인일수록 취업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급격한 도시화와 교육수준

의 향상, 그리고 혼전 취업률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부인들이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부인들의 취업의식이 도시 성장이나 교육수준 및 혼전취업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이 보편화될 때 취업에 대한 태도도 보다 자율화될 수 있음을 의심치 않게 한다.

Table 7. Percent distribution of wife's opinion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selected characteristics

기혼부인의 특성별 취업에 대한 의견(%)

Characteristics	N	Never	Condi- tional	Any Time	Not Sure	Characteristics	N	Never	Condi- tional	Any Time	Not Sure
All women	2,680	7	35	57	1	Worked before marriage	1,352	10	35	54	1
Age						No	894	2	36	61	0
<25	191	3	39	57	0	Yes, family reasons	434	7	31	61	0
25~29	637	3	37	59	1	Yes, other reasons					
30~34	481	8	38	57	1	Wife's age at marriage	687	10	36	54	0
35~39	372	8	33	59	1	Below 20	1,612	6	35	58	1
40~44	308	13	35	50	2	20~24	381	5	33	61	1
45~49	291	9	28	63	0	25 and over					
50~54	220	13	32	55	0	Parents decided husband first	1,343	10	33	56	1
55+	180	11	33	56	0	Yes	1,337	4	36	59	1
Place of growth						No					1
Rural	1,770	8	36	55	1	Post-nuptial coresidence with in-laws No	1,480	6	34	59	1
Urban	910	5	32	63	1	Yes	1,200	8	36	55	
Wife's years of education						Husband's age-wife's age	728	8	36	56	1
<6 years	157	15	34	50	1	6 years or more	1,641	7	35	57	1
6~8 years	548	10	34	55	1	1-5 years	311	7	32	61	
9~11 years	592	7	38	54	1	0 or less than 0					1
12+ years	1,382	5	34	60	1	Husband's edu-wife's edu	105	10	25	64	1
Residence						wife's>husband's	1,140	7	33	57	1
Seoul	638	8	35	56	1	wife's=husband's	1,435	7	36	57	
Other urban	1,207	6	33	60	1	wife's<husband's					
Rural	835	8	30	61	1						

Table 8. Estimated gross and net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 odds ratios, on whether woman thinks married women should work any time they want to

부인들이 가정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취업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식에 미치는 조(粗) 및 순영향

Independent variables	Gross effect	Net effect	Independent variables	Gross effect	Net effect
			Worked before marriage(No. is reference category)		
Age in years	1.0011	1.0068	Yes, for family reasons	1.3134*	1.1892
Age squared	0.9999	1.0000	Yes, for other reasons	1.3383*	1.3233*
Place of growth : Urban	1.3702*	1.2367*	Wife's age at marriage	1.0139*	1.0159
Wife's years of education	1.0366*	1.0313*	Parents decided husband first	0.8862	1.0437
Residence : Seoul	1.0441	0.8428	Post-nuptial coresidence with in-laws	0.8398*	0.8801
Other urban	1.1390	0.9646	Husband's age-wife's age	0.9883	0.9968
			Husband edu-wife's edu	1.0038	1.0146

Note : Women who responded "not sure" are excluded.

* means $P < 0.10$

그렇다면 부인들의 취업태도가 실제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러한 점은 본 연구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kong and Choe, 1989)에서 부인들의 취업태도가 실제 취업에 그렇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인취업은 부인들 자신의 의견보다는 남편이나 시부모의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고, 또 가족 중 어린 자녀를 둔 경우와 노인을 모시고 있는 경우는 취업이 통제되고 있으며, 또 남편 수입이 높거나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도 역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부인 취업률의 증가는 단순히 취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

인들은 높은 취업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할 수 없거나 또는 가정형편상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부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인들에게 취업교육의 확대는 물론 가정에서 취업분위기 조성, 육아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 가사역할의 분담 등이 그것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성교육을 확대하면서 많은 고급인력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인력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經濟企劃院, 1960年 人口住宅 國勢調查報告, 第2卷, 20%抽出集計結果, 1963.
- _____, 1966年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全國, 1967.
- _____, 1970年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全國, 1972.
-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75年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3-1 經濟活動, 1978.
- _____, 198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全國, 1982.
- _____,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全國, 1987.孔世權·朴仁和·曹愛姐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孔世權·曹愛姐·金勝權 外, 韓國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1991년 出產力調查를 中心으로,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勞動部, 勞動統計年監, 1977, 1986.
- 盧美惠 外, 女性の 就業實態, 韓國女性開發院, 1986.
- 政務長官室, 女性の 役割과 實態에 관한 國民意識調查, 1989.
- Kong Sae Kwon and Minja Kim Choe, "Labor Force Participation Married Women in Contemporar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9(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9.
- Lu, Yu-Hsia. "Women's attitudes toward career role and family role in Taiwan's social chang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Ethnology Academia Sinica*, 50 1980, pp. 25~66
- Mason, Karen Oppenheim and Yu-Hsia Lu., "Recent change in attitude toward women's role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Storm : American Society a Decade After the Vietnam War.*, Taipei, Taiwan : Academia Sinica, Institute of American Culture, 1987, pp. 461~488.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ublic of Korea, *1991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1992.
- Oppenheimer, Valerie K., *The Female Labor of the United States :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Determining its Growth and Changing Composition*, Berkeley,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Population Monograph Series, No. 5, 1970.
- Retherford R. D., M. K. Choe, *Statistical Models for Causal Analysi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forthcoming, 1992.
- Tsuya, O. Noriko and Minja Kim Choe, "Changes in Intrafamilial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Women in Japan and Korea", *NUPRI Research Paper Series No. 58*,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Tokyo, Japan, 1991.

<Summary>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Attitude and Behavior

Minja Kim Choe* · Sae-Kwon Kong** · Oppenheim Mason***

This paper focuses on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the Republic of Korea, especially on married women's attitude toward the employment. Although the data we analyze were collected at only one point in time, our ultimate concern is with change over time. The data used in our analysis are from the Survey on Family Life Cycle conducted in 1986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rmerly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This survey collected information on marriage, fertility, employment, family roles, and attitude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3,013 married women under age 65. Information on employment before and after marriage as well as the attitudes toward employment were collected.

Married women in Korea hold quite liberal views on women's work, with a majority of them espousing a woman's right to choose whether she works, regardless of her marital or parental status. Fifty-seven percent of all mar-

ried women endorse the idea of a woman's freedom to choose to work; among those who grew up in urban areas, attended 12 years of school, and worked before married for non-familial reasons, the percentage rises to 68. This high level of support for wives' employment is surprising, given the strong family tradition that made a woman's duties as a wife and mother her primary obligation in life, and the recency of mass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married women.

Although women born at different periods in the past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in their attitude toward wives' employment, three other variables significantly predicted support for women's employment. These were having grown up in an urban rather than a rural area, having attain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schooling, and having worked before marriage, especially for non-familial reasons. Marked shifts in the South Korean population during the past 3-4 decades from rural to urban residence, toward

* Assistant Director for Professional Education,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 Research Associate, program on population,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secondary school completion, and for women, toward premarital employment in the formal sector of the economy, all suggest that women's attitudes about the employment of wives are likely to have liberalized considerably during this period. The correlations between urban residence, education, and premarital employment and women's attitudes also suggest the strong possibility of further liberalization of attitudes in the future.

Do women's attitudes affect actual labor force participation? An earlier analysis of the same data as were used in this analysis concluded that women's attitudes do not necessarily predict their employment (Kong and Choe 1989). Women's actual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found to be affected more by the perceived attitude of family members such as husbands and parents-in-law than by their own attitude. In addition, the same study reported that in urban areas controlling factors such as presence of young children, presence of older members in the household,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household, women's level of education were inversely associated with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her than being directly related, as one would expect on the basis of the educational dif-

ferentials in women's attitudes found in the current analysi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cent increases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probably have not been driven by attitudinal changes. The high level of support for women's employment expressed by Korean wives, however, suggests that the lag between behavioral and attitudinal changes noted in earlier studies of the United States may be much shorter or non-existent in Ko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factors that would facilitate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especially among the more educated urban women. Support from family members, improved conditions of employment, making adequate child care available, and sharing of house work by family members are some of the changes that would be likely to facilitat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bviously, Korean women strongly support the idea that a married woman has the right to work if she chooses to. It would appear that for many of these women, especially many of the best educated women in urban areas, significant barriers to their participation and realization of their full human potential still exist.